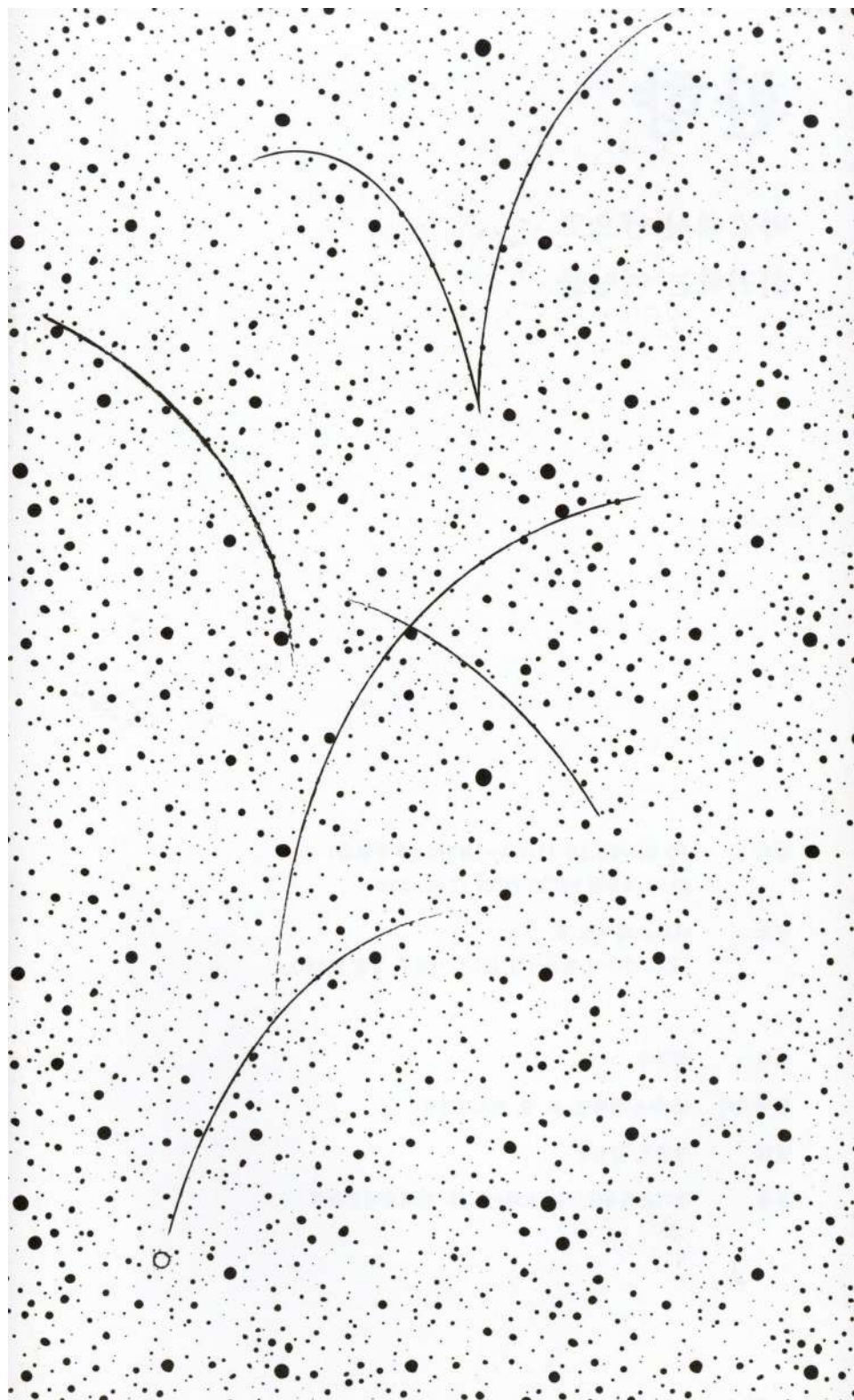




환향

바깥에서 안으로
회귀하는 여인들

- 일시 10.01~10.10 11:00~18:00 (휴무없음)
10.03 목요일 RECEPTION 17:00~20:00
- 장소 아트스페이스 휴
(경기 파주시 광인사길 111 도서출판 청솔 301호)
- 기획 강정아
- 참여작가 남하나, 정혜진, 조 말, 히스테리안
- 협력 강병우, 김민주
- 후원 경기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휴, 한국출판진흥원

환향: 바깥에서 안으로 회귀하는 여인들

지역과 사회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은 정체성을 강제하는 기호로써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 연령과 계층, 직업과 지위 등 다층적으로 발현되는 논의와 현상은 국가와 사회가 암묵적으로 역할과 입장을 중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성을 '지역색'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파주'는 외곽에 위치한 전쟁과 평화의 상징매개가 되는 정치적 장소(임직각, DMZ, 군사기지)와 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두 모습(신도시에 안착하는 이주민, 일거리를 찾아 외곽의 공장단지로 파견되는 노동자)에서 다양한 자본과 정치적 태도와 권력이 작동한다. 더불어 분단국가라는 정치적 태도 아래 놓인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기억에서 재현하고 있는 '유효한 역사'에 살고 있다. 파주는 이러한 영토에 대한 내재적 불안이 감지된 지역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국경 안팎을 맴도는 불안의 그림자를 쫓고자 한다.

내재적 불안이 감도는 전쟁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단선의 경계지점에서 영토, 공간과 장소, 지역과 사회는 어떤 의미를 강제하고 있을까. 파주가 지닌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상상하며 경계 이탈자와 아닌 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파주는 토착민, 이주민, 환향민, 실향민 등 넓은 맥락을 담고 있는 '한국적 난민'으로 읽힐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적 난민'은 고향이라는 장소를 박탈당한 혹은 뿌리내린 곳에서 추방된 자를 일컫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사용과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난민'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서 탈북자, 새터민,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 확장된 범위로 쫓아가면서 최초의 '장소 없음'과 장소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자' 대한 기원을 찾고자 했다. 특히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장소 없음과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밝혀보자면 이동 주체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주로 남성 노동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들은 급격한 대도시화의 흐름에서 남성의 이동성보다 자유로웠다. 이러한 의미는 국가의 공식영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었던 가사노동과 섹슈얼리티가 상품 가치, 재생산의 값어치로 매겨졌고 이는 상품으로 판매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시에서 호출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이 모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노동 이주를 떠난 후 조선족 여성이 없는 그 공간을 탈북 여성이 매워주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지점은

국가의 공식 역할에서 배제되어왔고 통계와 자료, 기록에서도 잡히지 않는 비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비체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여성에 주목했고 이들을 내몰았던 국가와 민족이 부르는 '고향'이 어디일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삼백 년 전,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최전선으로 내몰려 죽음을 면치 못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여인들이 살아남아 돌아왔을 때 절개를 잃은 '화낭질'이 돼 버린 상황, 돌아오더라도 가문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던 환향녀의 이야기 말이다. 전시 <환향>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고향'의 장소와 '돌아온다/오지 못함'은 무엇인지, 이 최초의 질문을 '환향녀' 역사의 길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길목은 사적 경험, 거시적인 화두와 가부장제 체계에서 포섭되지 않는 미시적인 사건들을 발화하는 통로이며, 계보학적인 화낭년의 호명에서 방향을 돌려 장소로부터 출발한다. 혹은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 장소에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장소가 없는 안과 밖 경계 이탈성에 주목한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집이 '없는' 곳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복잡한 실존의 문제로 엮이게 된다. 안전과 안위로 울타리 쳐진 경계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는 평행선으로 울려 퍼지고 결코 닿지 않을 메아리로 울부짖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가, 영토 민족으로의 귀향이 아닌 불안의 얼굴을 확대하는 장소, 제3의 연대 공간을 꿈꿔보지만 복잡한 실존의 문제는 혐오의 얼굴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다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섭되어 개별사적 차이를 은폐하고 채색되어진 전체의 이야기를 경계하며 울타리 안팎을 허무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대지의 기원으로써 환향녀(바깥에서 안으로 회귀하는 여인들)가 되고자 한다.

* 참고문헌 「말과 활 11호」탈북자 사유하기, 김성경

고향으로 돌아온다 “환향還鄉”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란 곳이 있을까 한참을 생각해보았다. 고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역,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 칭할 때 내게는 일반적인 고향은 고향이 아니며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과 안정을 주는 곳, 장소를 고향이라 일컬을 수 있다.

마음 언저리에는 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 결핍과 불안에서 기인하여 탄생시킨 ‘고향’은 일종의 아지트 형태이며 나아가 이것과 저것 사이 경계지점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열망에 기인한 정서적 공간〉은 어린 시절에 보았던 파주 문산 지역의 군사 방어 시설을 모티브로 한 설치작이다. 그 군사 방어 시설은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기억한다. 검게 그을리고 이끼 식물이 표면을 가득 뒤덮은, 차가 겨우 통과할 만한 틈을 허용한 채 위협적인 자세로 세월을 버티며 서있던 모습이었다. 군사방어시설이 목적인 구조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한 정서적 안정의 공간이 되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파주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점에 있는 해마루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살벌하게 검문하는 군인들을 먼저 만날 수 있었다. 〈날카로운 요새〉는 그곳에서 보았던 작은 설치물과 분위기를 형상화시킨 오브제이다. 군인은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대조하며 확인하였고 입구를 무사히 통과하자 어떤 도시보다도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마을이 펼쳐졌다. 무려 군인들이 지켜주는 마을이었다.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은 양가감정에 놓이게 했다.

환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향을 꿈꿀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종류를 막론한 불안에서 구원해줄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고향은 근본적으로 지금 이 곳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겉으로 보기엔 불안해 보이지만 극과 극 그 사이 어디쯤 몸 하나 들어가 누일 만한 작은 틈새가 있다면 그곳이 쉴 만한 곳인지 모른다. 그곳은 내가 명명한 아지트, 도피처, 고향이다.

열망에 기인한 정서적 공간, 130x60x220cm, mixed media, 2019

동근 방어, 50x38x35cm, mixed media, 2019

Light House: Shelter, 35x35x140cm, mixed media, 2019

방향을 돌려 돌아온 “환향還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를 떠도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흔해 빠진 경험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년 시절을 보냈던 중국 심양은 경계의 도시였다. 그곳에는 탈북자와 남한 이민자(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비교적 정착하기 쉬운 심양이라는 도시로의 도피를 택했다.) 그리고 조선족이 모여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어우러져 살았다. 심양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연변, 하얼빈 등과 함께 조선족이 가장 많이 정착해 터전을 일군 도시이다. 그들은 당시 대부분 한국인의 언저리에서 가사 도우미, 한국 음식점 종업원, 중국어 과외 선생님 등으로 존재했고 현재 한국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조선족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조선족 여성들의 경우 생활과 밀접한 위치에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 항상 그곳에 존재했다. 과거 언제나 ‘누군가의 무엇’으로 존재했던 주변을 떠돌던 조선족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심양이라는 땅과 연결된 다섯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고향이 개인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지, 부유하는 초상들을 통해 경계와 배척으로 만들어진 시선이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지 질문한다. 고향을 떠나 시간을 건너 한을 품은 이야기들이 돌고 또 돈다.

단 한 번도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듣지 않았던 구설은 형체 없는 마나먼 설화처럼 남겨졌다. 〈부유데기의 환영〉은 살아있는 음성이 모방의 이미지를 만나 충돌하고 허구 같은 실재, 실재 같은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도처에 깔린 낙인의 경험과 현상을 마주한다.



마치 ~인 것처럼 “환향년 되기”

장소 없는, 맵도는 이들의 얼굴 ‘환향’ 시작은 개인의 ‘불안’에서 출발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개인의 위치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상황을 지켜봤다.

즉, 나는 지워지고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진다.

〈되기를 위한 과정〉은 지역에 머물거나 이동하는 이들과의 대화와 행동을 관찰 하면서 수집한 ‘불안’의 단상이다. 철책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공간의 불안정성, 광활한 회색빛 단지 내 이동하는 분주한 사람들, 고향이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머무는 곳,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소의 이동, 언어, 얼굴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개인이 가진 저마다의 ‘불안’을 읽었다. 이 작업은 개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재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000되기〉는 〈되기를 위한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현재의 얼굴들이다.

노동을 위해 갈아입는 탈의실, 짜집기 된 이름 모를 누군가, 그리고 나를 나타낸다.

다양한 맥락으로 뒤엉킨 혼재적 인물인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되기’를 위해 한발 나아간다.

인물의 얼굴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이번 작업은 스스로가 ‘되어지다에서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언어를 찾아 주체로서의 나를 확인한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이길 바란다.

되기를 위한 과정, 25*35cm, mixed media on paper, 2019

000되기, 53*65cm, acrylic on linen, 2019

향을 피워준 자에게 향한 답가 환향(還香)

어떤 말들은 대답이 아닌 질문을 이룬다. 질문은 날카롭게 버려진 차가운 문장이다. 질식 직전에 간신히 토하는 더운 숨결처럼 불쾌하기도 하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짜증나도록 질문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질문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타인이 부과한 정체성에 집요한 반문으로 응수하는 사람. 규정 폭력에 의해 말을 박탈당했으나 바로 그러한 권위에 마주 섰던 탁월한 투사. 그들을 우리는 **히스테리안**이라고 부른다.

‘화냥년’은 ‘창녀’를 낮추어 부르는 옛 비속어이다. 이 단어를 따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전쟁에서 적국에 납치되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여인들인 ‘환향녀’가 있다. ‘환향하는 여자’는 고향, 경계, 장소 없음 그리고 생성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었으며,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온 여인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곳에서 맞닥뜨린 폭력이 어떻게 그녀들을 지워갔는지, 집도 고향도 없게 되어버린 이에게 환향하는 일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새롭게 일구어낼 장소는 어떤 곳일지를 묻고자 한다.

히스테리안 계간 3호 『환향년』 140*210cm, 2019

ISSN 2586-7326

0

안정을 불안 사이에서 찾는 기묘한 일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안정과 불안, 안전과 위험은 자주 공존한다. 안정은 불안으로부터의 안정이고, 안전은 언제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상대방을 부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의미를 얻는 이 방식, 서로에게 얽히고 저지당함으로써 의미를 확보하는 이 관계가 자못 흥미롭다. 그러고 보면 안정을 불안이 둘러친 곳에 두는 일이나, 집을 위험이 산재한 곳에서 찾는 일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 아지트로 가려면 장애물을 지나야 한다.

1

질서의 경계까지 걸어 나가다 보면, 안정되었던 질서가 진동하면서도 아직 완전한 혼돈에는 도달하지 않은 회색지대를 마주한다. 이곳엔 질서 안에 단정하게 포섭되어 들어가지 못한 요소들이 떠다닌다. 질서의 영역 안에서 통하던 인과가 이 경계지대에선 통하지 않는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었던 것들의 사슬이 풀어진다. 처벌받기로 했던 행동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자유의 영역에 맡기기로 한 행동도 공연히 처벌된다. 이곳은 '정의'의 질서가 뒤틀리고 왜곡된 시대이다.

이곳은 안정된 격자 안에 집어넣으려던 것들이 빠져나온 땅이다. 법은 정의상 자신이 모든 것에 정당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규칙들은 자주 불합리하다. 이 불합리는 예외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불합리가 합리적 정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리도 정의도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예외는 질서가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질서로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다. '그 질서의' 실패작들이다. 이 실패-예외들은 그 질서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지도, 옳지도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물증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옳음'이 부식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한다.

2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부른다면, 고향은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존재자에게 영점과 같이 주어지는 재산이다. 세상에 생겨나 어딜 향해 얼마나 멀리 걸어 나갔건 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보통의 존재도 누릴 수 있는 가장 미약한 권리라. 그러나

‘환향년’의 ‘환향’은 고향이 없어져버린 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뜻한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박탈된 자에게 영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환향’은 그것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간단한 인간성을 뜻하는 세계와, 그것이 ‘없는 집에 돌아간다’ 혹은 ‘없게 된 고향에 돌아간다’는 복잡한 실존의 문제가 되는 세계 사이에 서서 양자의 간극을 문제화한다. ‘환향’은 집과 고향이라는 조건에서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다층적으로 차이와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향한다’는 행위가 어떤 의지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지를 묻는 화두이다.

3

‘집’이란 안정적이고 완전한 이상향이다. 그러나 ‘환향년’을 통해 보는 순간 그곳은 ‘가부장의 집’이 되고, ‘쫓겨난 집’이 되며, ‘집이 아니게 된 집’이라는 역설이 된다. 환향년은 안정된 질서가 비틀리는 곳에 있는 이들을 부르는 한 가지 이름이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예외의 지대다. 가부장의 질서는 이들을 포섭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편’의 질서는 모든 것을 포섭한다’는 소위 진리에 부합하기 위해, 거꾸로 이들이 ‘모든 것’(‘존재’)에서 벗어난 ‘예외’의 지위로 강등된다. 환향년은 집과 고향으로 대변되는 총체적 질서가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폭력적 예외를 강요함으로써 지탱되는 것임을 가시화하는 췌기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수자와 그들에겐 다르게 적용되는(혹은 박탈되는) 소위 ‘기본적’ 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로가 처한 예외적이고 폭력적인 상태에 저항하고 연대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처해있는 예외적 폭력이 무엇인지를 살핌으로써 ‘그것을 폭력을 통해서 포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완벽한 질서일 수 없게 되는’ 그 권력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환향년은 자주 집단과 장소로 나타난다. 환향년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자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에게 주어진 장소를 떠올려 보라. 고향이 편안하고 안정된 집이 아닌 곳, 불안과 근접한 공간만이 집터로 주어지는 그곳을 떠올려보라. 파주는 대한민국이 질서 잡히고 안전한 나라이기 위해, 실재하는 불안의 요소가 뒤섞인 채로 보관되고 있는 땅이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안정된 곳으로 통합하는 불합선이며, 그렇기에 가장 어렵게

통합된(실은 통합되지 못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이것이 ‘환향년의 장소’로서의 ‘파주’가 갖는 의미이다. 안정될 조건의 최전선이라는 것, ‘안전’의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채 안전과 예외의 두 얼굴로 불안한 진동을 이어가는 것들에게 주어진 장소라는 것, 가장 불안하고 미심쩍게 처리된 문제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그래서 무한히 다양한 것들이 뒤엉켜 있다는 것, 그래서 파주를 보면 무엇이 대한민국을 한 국가로 만드는 조건의 최고 현안에 있는지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 왜 그네들의 이름은 여성의 이름인가? 오늘날 보편적 질서를 표방하는 각 권력들에서 공통으로 중첩되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여성에 의한 시초축척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 식민주의에서 여성의 성과 노동력을 착취한 시스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가부장의 도덕에서 여성이 정절의 가치에 종속된다는 사실이 표백되어있는 것을 보라. ‘환향’이 질서의 총체성(안정)을 공격하는 균열의 지점(불안정)이라면, ‘년’은 그 질서들(권력의 다양한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비틀며 가로지르는 얼굴로서의 여성이다. ‘환향+년’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문제적’ 지점이기 때문이다.

4

실천적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한 전략은 ‘환향X되기’이다. 이것은 ‘환향년 되기’라고 읽을 수도 있고, ‘환향’과 ‘되기’의 곱으로 읽을 수도 있다. —내 안에 균열점을 ‘나의 병’으로 진단하는 대신 ‘환향년’의 신호로 읽는 일은 내 안의 환향년을 불러오는 일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을 느껴내는 첨예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일그러진 상을 발견한다. 고통과 불안은 온갖 사소한 동작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원하는 대로 쓰다 그럴 때 어찌면 바로 그 히스테리안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나 아닌 환향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자들의 이야기를, 나와 동시대이나 다른 공간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를 끈질기게 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마치 그네들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겪었던 조금 다른 일에서의 경험처럼, 마치 내가 너라는 환향년이 된 것처럼 공감해보길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환향하기’는 곧 너의 ‘환향X되기’가 된다. 나의 ‘환향X되기’는 다시금 나의 눈을 들여다 보는 너의 ‘환향하기’가 된다. 나를 읽고 너를 듣고 어디론가 걸어가려는 의지로부터 ‘환향’은 시작된다.

